



충남마을기행
천 동자북마을

전통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동자북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리(三百里)

- 박목월 "나그네" -



한국적 향토의 따뜻한 서정이 느껴지는 '술 익는 마을'인 서천 동자북마을에서 필자는 나그네임을 자처하고 싶다. 고향의 향수와 풍요로운 정취에 취하고 싶기 때문이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이 구름에 가려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름은 여름인지라 하루종일 땀을 비오듯 흘리며 동자북마을에서의 하루를 보냈다.



〈사진 1〉 동자북마을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에 위치한 동자북마을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19명의 동자(童子)들이 끝까지 싸우다 모두 이곳에서 전사했는데, 그 후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땅속에서 북소리가 들렸다고, 마을이 마치 동자가 북을 치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동자북이라 불렀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면 커다란 '동자북'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북을 19번 두드리고 소원을 빌어야 동자들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마을에 체험객들이 오는 날이면 온 마을에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동자북마을은 총48가구 8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체험관, 식당, 전시실, 조합사무실 등을 건립해 체험객을 맞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천군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

을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그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동자북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체험객 유치로 통한 주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한광 사무국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무국장은 3년 전부터 시골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꿔왔던 세무사였다. 작년 10월 서천군



〈사진 2〉 마을을 상징하는 동자북

귀농인협의회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청 직원의 권유와 협박(?)으로 이곳 마을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마을 주민들이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입니다. 주민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원칙과 소신으로 주민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니, 지금은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필자가 찾아간 날도 성남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족단위 체험객 60여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동자북마을을 방문했는데,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직접 체험행사를 도와주고 계셨다.



〈사진 3〉 인터뷰중인 동자북 마을 이한광 사무국장

동자북마을에서의

1박! 2일

동자북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 지난 6월 달에는 2~3일에 한번 꼴로 체험객이 방문하는 등 그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자북마을은 '소곡주 만들기 체험', '한산모시 체험', '우리밀 체험', '짚풀공예 체험' 등 이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와 역사체험으로 농촌에서의 추억이 없는 학생들은 물론 옛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어른 등 가족단위 체험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먼저 마을을 찾은 체험객과 인사를 나누면서 전체 일정을 소개한 뒤, 본격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산은 모시와 소곡주로 가장 유명하다. 동자북마을에서 불과 5분 이내에 한산모시관이 있어 교육과 체험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현재 한산세모시를 짜는 분이 대략 200명이 있는데, 그중 막내(?)가 60대 할머니라는 사실이다. 여름에 시원하고 품질좋은 한산모시로 만든 옷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십여년 후에는 한산모시의 대를 이를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동자북마을에서는 한산모시관 체



〈사진 4〉 마을회관에서 체험객에게 마을과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5〉 한산모시관에 들른 체험객들이 문화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험 이외 '미니 베틀'로 모시 팔찌만들기와 모시삼기·모시짜기 체험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또 운이 좋아 한산5일장이 열리는 날과 맞으면 장터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뭐니뭐니해도 체험의 최고는 먹을거리가 아닐까 싶다. 바로 모시로 만든 부침개, 모시개떡, 모시칼국수를 직접 만들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함께 둘러앉아 먹는 음식맛을 본 체험객들은 마치 소풍나온 초등학교의 기쁨과 맘 먹음만 했다.

또한, 한산은 술 익는 마을로도 유명한데, 바로 소곡주다. 특히 동자북 한산소곡주는 발효기간이 길어 그 맛과 향이 깊고 은은한 우리 고유의 전통 명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한산지방을 지나다가 주막에 들러 소곡주를 마셨는데, 그 술맛에 취해 결국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설화처럼 일명 '앳은뱅이 술'이라고도 한다.



〈사진 6〉 체험객들이 한산세모시짜기 시범과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7〉 짐물공예의 대가인 김강열 할아버지와 함께 달걀꾸러미를 만드는 모습



〈사진 8〉 이한광 사무국장이 직접 미니 베를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9〉 체험객들이 한산소곡주 만드는 과정을 듣고 있다



〈사진 10〉 한산소곡주 말술빚기 체험



〈사진 11〉 모시로 음식 만들C 먹는 체험

동자북마을에서는 소곡주를 만드는 전 과정을 설명해주지만,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하기에는 3박4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흰무리와 불누룩을 함께 버무려 술밧을 빚는 ‘말술 빚기’ 작업만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숙성되지 않아 약간 텁텁하긴 하지만 소곡주의 향과 맛이 배어있는 술을 시음해볼 수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이 술을 마셔보려 한다는 것인데, 부모의 허락 하에 태어나 처음으로 술맛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녁식사 후엔 소리꾼 이걸재 선생을 비롯한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사물놀이를 직접 즐길 수 있는 한바탕 잔치가 열린다. 이때쯤되면 서로 서빙서먹하던 학생들은 서로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어른들은 그 모습에 흐뭇해하며 소곡주를 한잔 쪽 들이키곤 했다.

동자북마을에 펜션은 없다. 그러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함께 하룻밤을 묵으며 시골집 체험을 겸하고 있었다.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아?’ 하며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논밭에서 함창하는 개구리 소리와 섞여 말 그대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농촌에 활기가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일 게다. 필자도 고향 시골집에 내려가면 손자·손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즐겁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자주 찾아뵈어야겠구나.’ 하곤 한다.

이밖에 들쨍날은 월하성리 갯벌 체험장으로 이동, 바닷내음 맡으며, 맛조개 등을 잡으며 오전 한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동자북마을의 1박2일 체험객으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참여한 이기성(47세)씨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가족과 함께 모시쌈기, 소곡주만들기 등 체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사진 12〉 방학을 맞아 동자북마을 1박2일 체험행사에 참가한 이기성씨 가족

동자북마을의 미래,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밝힐 것

동자북마을 박인순 이장님은 “올해로 이런 체험사업을 시작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처음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했다.”면서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면 시작도 못 할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한광 사무국장의 어깨가 더 무거웠으리라 짐작된다.

이 사무국장은 “올해 1/4분기에 고작 50여명의 체험객만이 방문했으나, 제가 동자북마을에 들어온 4월 이후 현재까지 700여명이 우리 마을을 찾았다.”면서 “그에 따라 마을주민 소득도 작년 대비 20배 가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진 분명한 사실이다. 마을주민을 설득하고 이끌면서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전담인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사무국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체험객 홍보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색 체험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12〉 동자북마을 박인순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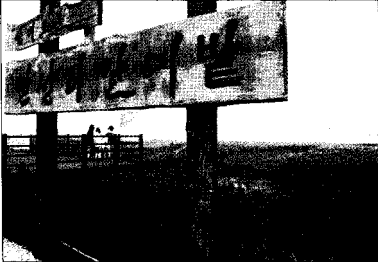
〈사진 13〉 동자북마을 종합안내도

한편 “궁극적으로는 동자북마을의 체험사업을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보다 조직화된 전문인력을 통해 운영·관리하고 싶다.”면서 “마을회관 앞 넓은 텃밭을 운동장으로 개량해 미니축구장, 족구장 등으로 활용해 대학생 MT장소로 꾸려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필자는 동자북마을이 보다 발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소원을 빌며 동자북 19번을 울렸다. 앞으로 오래도록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동자북소리를 염원하며 말이다.

[동자북마을 때키지 여행]

● 신성리 갈대밭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에 위치한 33만㎡의 갈대밭!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신성리 갈대밭'은 어른 키보다 훌쩍 큰 갈대밭 사이를 걸으며 연인, 가족끼리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갈대밭 속에서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갈대꽃이 만발하는 10월에 꼭 들러보길 추천한다.

- ▶ 오는 길 : 동서천C(서해안고속도로/서천공주간고속도로) - 한산/부여 방면 - 유산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 ▶ 기타 : 동자북마을과 15분 거리

●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위치한 동백나무숲,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은 동백정! 서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이 동백나무숲은 매년 3월말~4월초가 되면 동백꽃이 장관을 이룬다. 이맘때 함께 열리는 주꾸미 축제도 인기다. 또한 이곳은 서해이면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어 더욱 특이하다.

- ▶ 오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C를 빠져나와 서천/장항 방면으로 우회전 후 3km - 성내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춘장대 방향 11km
- ▶ 기타 : 동자북마을과 50분 거리

